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41

JCCT 2023-9-18

팬데믹 기간 대학교육 만족도가 청년의 취업준비 활동과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

Influence of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on Young Adults' Job Seeking and Social Participation

정병삼*

Byongsam Ju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기간 대학교육의 만족도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및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구축한 2021년 청년경제사회패널데이터의 대학교육만족도, 취업활동, 사회참여 등에 관한 8개 변수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은 총 2,941명이고, 구조방정식모형과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교육만족도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과 사회참여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대학교육만족도는 여성의 취업준비와 사회참여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남성집단에서는 취업준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학교육만족도는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활동과 사회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 활동에는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남성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대학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교육적 처방이 요구된다.

주요어 : 대학교육만족도, 팬데믹, 청년, 취업준비, 사회참여,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adults during the pandemic period.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the researcher used the panel data of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analyzed the eight variables related to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employment prepar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This study's sample consisted of a total of 2,941 individuals, and bo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appli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adults. In the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prepar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women, while for men, it only significantly affected employment preparation. Furthermore,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graduates from junior colleges, but it did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of graduates from four-year college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policy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enhance the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of male students and graduates from junior colleges are required.

Key words : College Education Satisfaction, Pandemic, Young Adults, Employment Preparation, Social Participation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2021년 청년경제사회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음. Received: July 27, 2023 / Revised: August 21, 2023

*정회원,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1저자)

Accepted: September 1, 2023

접수일: 2023년 7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1일

*Corresponding Author: byong3@naver.com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일

Dept. of Psychology,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oen, Korea

I.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국내외 대학들에서 전면적, 부분적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 대부분 대학이 상당 기간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대면 상호작용 기회를 얻지 못해 교육만족도가 저하되었다[1]. 대학에서는 원격수업 콘텐츠 질 향상, 소규모 대면수업 병행, 교수와의 직접소통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2].

팬데믹 시기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원격수업환경에 적응하기, 비대면 방식의 관계 맺기,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학업 및 취업을 위한 사회적 자원 찾기 등의 과업에 직면했다[3].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고 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자퇴하는 비율이 증가했는데[4],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생했다[5]. 이런 과정에서 뉴노멀 시대에 대학의 존재 이유와 대학교육이 졸업 후 청년의 진로, 사회생활 등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6]. 대학은 청년기와 성인 초기에 걸쳐 학업을 통해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역량을 배양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미래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7].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 대학생이 인식한 대학교육만족도가 그들의 취업준비와 사회적 참여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팬데믹 기간 대학생이 인식한 대학교육만족도는 그들의 취업준비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가?

1-1. 그러한 영향은 성별, 학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2. 팬데믹 기간 대학생이 인식한 대학교육만족도는 그들의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가?

2-1. 그러한 영향은 성별, 학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분석

Brask와 Hengstler는 대학교육 만족도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학과 및 전공 커리큘럼 만족, 교수와의 관계 만족, 동료학생과의 만족,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만족, 지원시스템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했다[8]. 커리큘럼은 해당 전공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인지적 역량, 정서적 역량, 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원천으로 커리큘럼이 충실할수록 대학교육 만족도가 높다[9]. 교수와의 관계는 대학교육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역량 강화, 권위자와의 관계 형성 능력 배양 등의 기초가 된다[10]. 동료학생과의 관계는 또래 피드백을 통한 학습능력 향상, 인간관계 형성 및 협업 능력 배양 등으로 대학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11].

대학생들은 심화하는 취업난 속에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받는데, 구직활동은 개인의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요구한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교 내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13].

대학생들은 전공과 대학생활 전반에 적응하는 과정에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다수의 청년들이 전공이나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장기 결석하거나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14].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 대학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학생이 소위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대학에서 학생상담, 소그룹 대면 토의,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때 대학생의 학업 지속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5].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이후 취업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구영애와 박인숙은 팬데믹 기간 간호대학생의 학과 만족도가 이후 취업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했고[16], 박은식은 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동아리 활동, 다양한 적성탐색 활동 등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했다[17]. Adele과 Seamus는 팬데믹 기간 대학생들의 학교만족도와 적성 개발 활동, 취업활동 등에는 학업, 지능 등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능력 개발, 정서지능, 그릿(grit) 등 비인지적 요소가 함께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18].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청년들은 고등 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전공교육과

대학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때 교수 및 동료 학생과의 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대학교육 만족도는 취업준비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다만 이러한 영향이 팬데믹 기간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한 성별, 학제별로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1년도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서 시행한 청년경제사회조사에 참여한 2041명이다. 이들은 전국 만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의 층화확률표집을 적용하여 표집되었다. 표 1에는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 정보를 제시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정보(N=2041)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Sex		Age		College Type	
Male	1074 (52.6%)	18~26	1053 (51.6%)	4-year college	1110 (54.4%)
				junior college	463 (22.4%)
Female	967 (46.4%)	27~34	988 (48.4%)	N.A	468 (22.9%)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정보를 살펴보면 남자 1074명(52.6%), 여자는 967(46.4%)이고, 연령대를 살펴보면 18~26세 그룹은 1053명(51.6%)이고, 27~34세 그룹은 988명(48.4%)이다. 졸업한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1110명(54.4%)이고, 전문대학이 463명(22.4%), 고등학교 이하 468명(22.9%)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2021년 한국청년경제사회조사의 설문에 포함된 482문항 가운데 대학만족(College Satisfaction) 4문항, 취업준비(Employment Preparation) 14문항, 사회적 참여 활동(Social Activities) 10문항, 인구통계적 정보 등과 관련된 3

문항을 분석에 사용했다. 표 2에는 각 척도별 대표 문항, 척도, 신뢰도(Cronbach's α)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도구의 문항 및 신뢰도

Table 2. Item content and reliability coefficient

Scale	Item Content	α
CS	I am satisfied with college education (5 points, interval scale)	.89
	I think college education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5 points, interval scale)	
	I think college education will be helpful for employment (5 points, interval scale)	
EP	I think college major fits me (5 points, interval scale)	.87
	Study in training center for technology (2 point, dichotomy measure)	
	Online training for employment (2 point, dichotomy measure)	
	English, second language training (2 point, dichotomy measure)	
	Job interview training (2 point, dichotomy measure)	
SP	Getting help for job-seeking (5 point, interval measure)	.90
	Family or relative gatherings (5 point, interval measure)	
	Work colleagues activities (5 point, interval measure)	
	Online gathering with friends, club members (5 point, interval measure)	

표 2를 살펴보면 대학교육 만족도는 취업, 향후 진로 등에 도움이 될 것에 대한 전망을 묻는 4개 문항으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9였다.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온라인 수강, 외국어 학습 등 14개 문항이고, 이분척도로 신뢰도는 알파계수 .87이었다. 사회참여 활동은 취업을 위한 정보획득, 정서적 지지 획득을 위한 만남, 가족 및 친척과의 교류, 직장동료와의 활동, 친구나 동호회 회원과의 온라인 모임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측정하고, 5점 등간척도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대학교육만족도를 외생 독립변인으로 취업준비활동을 내생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1-1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육만족도와 취업준비활동의 구조관계에 대해 성별, 학제별 다집

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대학교육만족도를 외생 독립변인으로 사회참여활동을 내생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2-1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육 만족도와 사회참여활동의 구조관계에 대해 성별, 학제별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는 IBM SPSS 18.0을 사용했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는 AMOS 22.0을 사용했다. 그림 1에는 본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연구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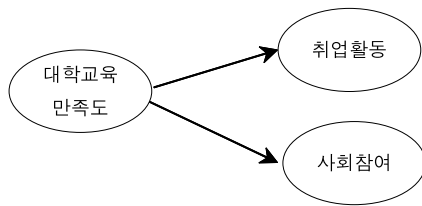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IV. 연구결과

1.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변인 3개와 인구통계 변인 3개의 상관 및 기술통계를 표 3에 제시했다.

표 3. 주요변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Table 3.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1	2	3	4	5	6
1	1.00					
2	.02	1.00				
3	.17	.07	1.00			
4	-.01	.13	.20	1.00		
5	-.19	.28	.12	.08	1.00	
6	-.02	.09	.03	.13	0.12	1.00
M	-	26.21	-	3.47	1.56	4.03
SD	-	4.12	-	.72	1.31	.74

*변수명: 1=남성여부, 2=연령, 3=4년제 여부, 4=대학만족도, 5=취업활동, 6=사회참여

표 3을 살펴보면 남성여부는 4년제 졸업여부와 정적 상관이 가장 높았고, 취업활동과는 부적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취업활동과 가장 큰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졸업 여부는 대학교육 만족도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기술통계를 살펴

보면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6.21세($M=26.21$, $SD=4.12$)였고, 사회참여($M=4.03$, $SD=.74$), 대학교육 만족도($M=3.47$, $SD=.72$), 취업활동($M=1.56$, $SD=1.31$)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2. 대학교육 만족도가 청년의 취업활동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 기간 대학교육만족도가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대학교육 만족도는 외생잠재변수로 취업활동과 사회참여를 내생잠재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① 구조모수의 추정을 통제한 영모형, ② 대학교육 만족도가 취업활동에 주는 영향만을 추정한 대안모형1, ③ 대학교육 만족도가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만을 추정한 대안모형2, ④ 대학교육 만족도가 취업활동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모두 추정한 대안모형3을 구성하여 분석했다.

표 4에는 네 가지 모형의 절대적 적합도 지수(χ^2 , $RMSEA$)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CFI, NFI, TLI), 그리고 위계적 카이제곱 검정($\Delta\chi^2$)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4. 네 가지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위계적 카이제곱 검정
Table 4. Four model's fit indices and hierarchical chi-square test results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3159.60	152	.09	.82	.81	.79
②	3150.42	151	.09	.83	.82	.80
③	5289.58	.151	.09	.82	.81	.79
④	890.04	149	.05	.95	.94	.94
Δ	2260.38	2	.04	.12	.12	.14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육 만족도가 취업준비와 사회참여에 끼치는 영향을 모두 추정한 ④번 모형이 가장 양호한 적합도($\chi^2=890.04$, $df=149$, $RMSEA=.05$, $CFI=.95$, $NFI=.94$, $TLI=.94$)를 보였다. 두 번째로 적합도가 양호한 ②번 모형과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은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2260.38$, $\Delta df=2$, $p<.001$). 또한 비교 적합도 지수도 크게 개선했다($\Delta RMSEA=.04$, $\Delta CFI=.12$, $\Delta NFI=.12$, $\Delta TLI=.14$). 이에 따라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표 5에 제시했다.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Table 5. Path parameter estimates of research model

Path	Estimate	SE	CR
College → Employment	.12	.07	3.10**
Satisfaction → Social	.18	.04	4.45***

** $p < .01$, *** $p < .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 만족도는 취업활동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gamma = .12$, $SE = .07$, $CR = 3.10$, $p < .01$), 사회참여 활동에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gamma = .18$, $SE = .04$, $CR = 4.45$, $p < .001$).

3. 대학교육만족도가 청년의 취업활동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집단별 차이

1) 성별 차이

대학교육 만족도가 취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 집단간 ①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 ③ 자유롭게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을 구성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했다.

표 6. 세 가지 경쟁모형의 적합도

Table 6. Three model's fit indices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7891.78	149	.09	.78	.78	.76
②	1026.09	135	.07	.89	.88	.87
③	230.12	87	.05	.92	.93	.9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집단 간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③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chi^2 = 230.12$, $df = 87$, $RMSEA = .05$, $CFI = .92$, $NFI = .93$, $TLI = .91$). 자유추정 모형의 남녀 경로모수 추정치는 아래 표 7과 표 8에 제시했다.

표 7. 남자 청년집단의 경로계수 추정치

Table 7. Path parameter estimates of male group

Path	Estimate	SE	CR
College → Employment	.11	.04	2.01*
Satisfaction → Social	.09	.05	1.04

* $p < .05$

표 8. 여자 청년집단의 경로계수 추정치

Table 8. Path parameter estimates of female group

Path	Estimate	SE	CR
College → Employment	.15	.02	3.71**
Satisfaction → Social	.13	.03	2.99*

* $p < .05$, ** $p < .01$

표 7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 만족도는 남성 청년집단의 취업활동에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gamma = .11$, $p < .05$), 사회참여 활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gamma = .09$, $p < .05$). 반면 여성 청년집단의 경우 대학교육 만족도는 취업활동($\gamma = .15$, $p < .01$)과 사회참여 활동($\gamma = .13$, $p < .05$)에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학제별 차이

대학교육 만족도가 취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학제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대학 졸업 청년과 4년제 대학 졸업 청년 집단간 ①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모형, ③ 자유롭게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는 표 9에 제시했다.

표 9. 세 가지 경쟁모형의 적합도

Table 9. Three model's fit indices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902.45	149	.08	.81	.78	.76
②	1001.78	135	.06	.88	.90	.88
③	199.38	87	.04	.93	.94	.92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제 간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③의 적합도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chi^2 = 199.38$, $df = 87$, $RMSEA = .04$, $CFI = .93$, $NFI = .94$, $TLI = .92$). 자유추정 모형의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경로모수 추정치는 아래 표 10과 표 11에 제시했다.

표 10. 전문대학 청년집단의 경로계수 추정치

Table 10. Path parameter estimates of junior college

Path	Estimate	SE	CR
College → Employment	.07	.02	1.14
Satisfaction → Social	.02	.03	.13

표 11. 4년제 대학 청년집단의 경로계수 추정치
Table 11. Path parameter estimates of 4-year college

Path		Estimate	SE	CR
College	→ Employment	.17	.07	2.28*
Satisfaction	→ Social	.09	.05	1.09

* $p < .05$

표 10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 만족도는 전문대 졸업 청년집단의 취업활동($\gamma = .07, p > .05$)과 사회참여 활동에 ($\gamma = .02, p > .05$)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집단의 경우 대학교육만족도는 취업활동($\gamma = .17, p < .05$)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참여 활동($\gamma = .09, p > .05$)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위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팬데믹 기간 청년들이 인식한 대학교육 만족도는 그들의 취업준비활동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팬데믹 기간 청년들이 인식한 대학교육 만족도는 그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팬데믹 기간 청년들이 인식한 대학교육 만족도가 취업준비활동에 주는 영향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여성집단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넷째, 팬데믹 기간 청년들이 인식한 대학교육 만족도가 사회참여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는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여성집단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다섯째, 팬데믹 기간 청년들이 인식한 대학교육 만족도가 취업준비 활동에 끼치는 영향은 학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전문대학 졸업자들보다 더 크다. 여섯째, 팬데믹 기간 청년들이 인식한 대학교육 만족도가 사회참여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는 학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론이 가지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대학생은 입학 초기부터 취업과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 선배, 동료들의 정보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19]. 그런데 팬데믹 초기 상당 기간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고,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대면 교류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20].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비록 팬데믹 기간이지만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과 다양한 주변인들과의 교류를 확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준비활동을 위해서 대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하는 직업 비전, 정보, 구직역량 등의 교육적 자원과 지지의 영향을 받는다[21].

둘째, 대학교육 만족도가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과 사회참여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민성 등이 수행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대학생의 교육만족도가 가지는 영향력에 성차가 있다[22]. 본 연구결과는 팬데믹 기간 전국 단위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높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교육 만족도가 주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학생이 대학교육에서 보다 다양한 지지적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적용하여 취업준비와 사회적 활동을 하나,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은 대학교육 만족도가 주는 영향이 낮다. 따라서 대학 학생상담소와 같은 기관에서는 남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교수, 동료 학생 등과의 교류를 통해 지지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취업준비와 다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인식한 대학교육 만족도는 전문대를 졸업한 청년들 보다 취업준비활동과 사회참여활동에 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윤범이 수행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3]. 4년제 대학 청년들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평판, 커리큘럼 등에서 전문대학 졸업 청년들보다 만족도가 높고, 이는 취업준비활동과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대적으로 전문대 졸업 청년들은 개인적 역량 등에 따라서 개인차는 있지만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취업활동이나 사회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준비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미현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기술 효율화 사업, 산학협력 선도사업 등에 참여한 전문대학의 경우 오히려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 효율성이 높다[24]. 대학 학제와 관계 없

이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입생 미달, 재학생의 이탈, 대학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대학들은 특성화 학과 개발, 교수-학생 간 멘토링 강화,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대학운영의 효율화와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수집된 전국단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교육 만족도가 청년들의 취업준비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학교육만 족도는 2021년도 청년경제사회조사 패널 데이터에 포함된 도구를 사용했는데,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교수자-학습자 관계 등 세부적인 만족도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제 간 비교는 각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 교육혁신 사업 참여 등 대학별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지표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H.K. Ya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the COVID-19 On-Contact Learning Environment: Focusing on Video production class and Real-time video cla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 321-328, May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321>

[2] J.E. Lee, "A study on pain points and improvement plans for interactive online classe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IBC)*, Vol. 20, No. 6, pp.137-144, December 2020. <http://dx.doi.org/10.7236/IIBC.2020.20.6.137>

[3] Y.J. Kim, "The College Life Adaptation Experiences of First-Year Stud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6, pp. 121-134, June 2022. <http://dx.doi.org/10.22251/jlcci.2022.22.6.121>

[4] B. Kang, and M.P. Hong, "Text Mining Analysis of Social Data for the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hatbot Desig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 22, No. 1, pp. 435-443, March 2022.

[5] S.E. Jackson, C. Garnett, L. Shahab, M. Oldham, and J. Brown, "Association of the COVID-19 lockdown with smoking, drinking and attempts to quit in England: an analysis of 2019-20 data," *Addiction*, Vol. 116, No. 5, pp.1233-1244, May 2021. <http://dx.doi.org/10.1111/add.15295>

[6] M.R. Parra, "Depression and the Meaning of Life in University Students in Times of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 No. 3, pp.223-232, October 2020. <https://doi.org/10.17583/ijep.2020.6784>

[7] G. Kruss, S. McGrath, I. Petersen, and M. Gastrow,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build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Vol. 43, pp.22-31, July 2015. <https://doi.org/10.1016/j.ijedudev.2015.04.011>

[8] L.A. Braskamp, S.L. Wise, and D.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pp.121-154, June 1979.

[9] H. Lee, and H. Mi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career search motivations and psychological needs on college satisfaction according to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1, No. 4, pp.47-66, December 2021. <https://doi.org/10.35273/jec.2021.11.4.003>

[10] M. Zhang, H. Kou, and S. Cho, "The Effect of Professor-Learner and Learner-Learner Interac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in Online Synchronous Learn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SS21)*, Vol. 14, No. 1, pp. 3755-3768, March 2023. <http://dx.doi.org/10.22143/HSS21.14.1.264>

[11] H.S. Gu, "The Effect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Applying Mutual Peer-tutoring on Nursing Students Core Basic Nursing Skills Performance, Confidence, Learning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6, pp. 947-963, August 2021. <https://doi.org/10.14400/JDC.2020.18.4.315>

[12] S.N. Kim, and J.H. Byeon, "An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Developing Employment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 No. 1, pp. 91-113, March 2012.
- [13]S.B. Cha, and H. Park,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Humanity & Social Science*, Vol. 30, No. 3, pp. 553-573, September 2022. <https://doi.org/10.22924/jhss.30.3.202208.022>
- [14]Y.S. Kim, and H.J. Lee,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college efforts for student support and student withdrawal,"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31, No. 2, pp. 33-61, June 2022. <https://doi.org/10.46967/jefe.2022.31.2.33>
- [15]J.H. Cho, and Y.R.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of Covid Blue, Requirements for support at University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9, No. 2, pp. 317-340, June 2022. <https://doi.org/10.21509/KJYS.2022.02.29.2.317>
- [16]Y. Ku, and I.S. Park, "A Study on Occupational Values, Nurses' Qualities Perceived and Job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3, No. 1, pp. 147-172, January 2023. <https://doi.org/10.35273/jec.2023.13.1.007>
- [17]E.S. Park, "Impact of the Motivation for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onto Psychological Happiness and the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upon the Level of Involvement in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9, pp. 117-132, September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9.117>
- [18]W. Adele, and M. Seamus, "The Determinants of Degree Programme Satisfac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Vol. 46, No. 11, pp. 2262-2278, November 2021. <https://doi.org/10.1080/03075079.2020.1716323>
- [19]H.J. Jung,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1, pp. 11-18, January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11>
- [20]S.Y. Kim, "Factors Affecting College Adjustment of First Year Student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 No. 1, pp. 135-148, January 2023.
- [21]F. Zheng, and S.W. Hahm, "The Effects of Profes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Improvement of Chinese Students' University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University Ident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7, No. 4, pp. 137-144, April 2019. <http://dx.doi.org/10.17703/IJACT.2019.7.4.137>
- [22]M.S. Kim, and B.K. Choi, "The Sex Difference in Relationship Model Among Faculty-Students Interactions and Higher-Order Learning, Career Commi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ngineering Interests and Major and Schoo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4, No. 1, pp. 151-181, March 2016.
- [23]Y. Shin, "Exploring the predictive variables of university satisfaction and GPA of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Using Random Forest," *Journal of Higher Educational Research*, Vol. 6, No. 1, pp. 39-67, January 2023. <https://doi.org/10.22838/jher.2023.6.1.39>
- [24]M.H. Noh, "A Comparative Analysis on Associate College's Relative Efficiency: Focusing on University Accreditation Project,"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 30, No. 6, pp. 49-74, June 2016. <https://doi.org/10.34274/krabe.2016.30.6.003>

※ 총성대연구소 2023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
았습니다.